

제209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주제 : 複数の自分を生きる ~ 「個人」から「分人」へ 복수의 나를 산다 : '개인'에서 '분인'으로

강사 : 히라노 게이치로(소설가)

시간 : 2017. 05. 23. 화. 12:00 - 14:00

장소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140동) GL룸

2017년 5월 23일(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140동) GL룸에서 제 209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열렸다. 약 30명의 대학원생과 연구소 교수진이 참여한 가운데, 강의는 일본어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복수의 나를 산다 : '개인'에서 '분인'으로'라는 주제로 히라노 게이치로 소설 작가가 강연을 진행하였다. 히라노 게이치로 작가는 1998년 교토 대학 법학부 재학 중 『일식』을 문예지 《신조》에 투고하여 실렸고, 이듬해 이 작품으로 제 120회 아쿠타가와상을 최연소 수상하면서, '미시마 유키오의 재래'라는 평가와 함께 일본 문학계에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주요 작품으로 40만부 이상이 팔린 『일식』(1998) 외에 『장송』(2002), 『센티멘털』(2003) 등 다수의 장편 소설과 수필·평론집이 있다.

히라노 게이치로 작가는 이번 세미나에서 2012년에 출판한 『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관한 내용을 기반으로 '개인'과 '분인'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 그는 서양에서 번역되어 들어온 "개인(individual)"이라는 개념이 현대인이 겪고 있는 정체성과 타인과의 관계의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 "분인(分人)"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나란 무엇인가, "타인과 함께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히라노 작가는 자신의 어렸을 적 이야기로 강연을 시작하였다. 그의 아버지께서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그는 당시 한 살이어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사진 외에는 전혀 없었다. 아버지가 없다고 외롭다는 느낌은 거의 없었다. 다만 심장의 맥박을 의식하면서 이 순간에 심장이 멈춰버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에서 "진정한 나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하나는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계속 있었던 나의 이미지와 다른 하나는 오늘, 내일 갑자기 나오는 이미지이다.

히라노 작가는 중학교 시절 학교가 전차로 1시간 거리에 있었다. 그는 어느 날 전차 안에서 미시마 유키오의 『금각사』라는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 이후 미시마 문학의 팬이 되었고, 그의 작품을 읽는 동시에 그가 영향을 받은 작가들의 책을 읽게 되었다. 학교 생활은 초등학교 시절까지는 괜찮았다. 중학생이 되면서 친구들이 즐겁게 이야기 하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었다. 당시 그는 인간이 사는 것, 죽는 것 그러한 것들을 알고 싶어했다. 교실에서의 이야기

는 어딘지 모르게 충족되지 않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친구와 이야기 할 때는 연기하는 느낌이 들었고, 집에서 책일 읽고 있는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이중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

히라노 작가가 중학생일 때는 1980년대였다. 그 당시에는 문부과학성(문부성)의 중앙교육심의회에서 '개성 존중'을 명확한 목표로 삼아 교육했다.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만화, 텔레비전의 주인공도 개성적인 성격으로 나왔다. '개성적인 사람이야말로 멋있다', '자신의 개성을 성장시키자!'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그런데 개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별로 와 닿지 않았다. 개성적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특별활동이라도 하면 개성적이라는 뜻일까? 이것은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때에도 자신의 개성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러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을 개성적으로 사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장래에 무엇을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데,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 개성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그때 진정한 나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책을 읽을 때는 자신의 안에서 중요한 나를 느꼈다. 그러나 학교 안에서는 학교가 싫지는 않았지만 진정한 자신이 아닌 것 같았다. 그래서 장래에 작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 하나는 미시마 작가의 영향으로 토마스 만의 작품을 읽었는데, 그 세계에 공감했다. 자신이 소외된 세계에 대해 적의를 품고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오히려 동경을 품고 밝고 긍정적으로 묘사한다는 점이 그의 독특한 매력이었다. 그의 작품들을 읽으면서 감동에 전율했다. 그때 문학을 사랑하고 미를 동경하는 내가 진짜고, 학교에 있을 때의 나는 표면적인 가면을 쓰고 주위 사람에 맞춰주는 것일 뿐이라고 느꼈다.

히라노 작가가 대학을 졸업한 1998년, 1999년 무렵에는 매우 많은 대학 졸업생 숫자와 거품경제 붕괴 후의 불황 탓에 취업하기가 어려웠다. 직업을 통해 자기실현을 이루고 사회 속에서 개성을 발휘하며 살고 싶었지만, 자신이 희망했던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속출했다.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위치는 큰 의미를 갖는다. 사회가 나의 개성을 도움이 된다고 인정해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면 괴롭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진정한 나'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렇다 보니 임시 아르바이트 같은 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언젠가 '진정한 나'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꿈꾼다. 그런 와중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다. '은둔형 외톨이'와 '자아 찾기 여행'이다. 은둔형 외톨이는 대인 관계를 모조리 차단하고, 집에 틀어박히는 것이다. 자아 찾기 여행은 해외로 나가 낯선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진정한 나'를 만나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두 현상은 정반대이지만 공통점은 일본 사회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히라노 작가는 정체성, 나란 무엇인가에 대해 계속 생각해 왔다.

그는 '개인'이라는 것을 주목했다. '개인'은 영어 'individual'의 번역어인데, 일반적으로 널리 퍼진 시기는 메이지 시대 이후이다. 에도시대에는 중국어로 영어를 번역한 책들이 들어왔는데, 거기서는 '단(單)', '독(獨)', '단일체', '일(一)' 등으로 번역되었고, 사람과 관련해서는 따로 '독일개인(獨一個

人), '독일개인(獨一個人)', '독일자(獨一者)'로 번역되었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책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론』에서 개인은 '독일개인'이라고 적혀있었는데, 일본어로서는 생소해서 사용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독'자가 생략된 '일개인'이 사용되다가, '일'도 생략된 '개인'이 번역어로 정착되었다. 이것은 중국과 한국에도 사용되었다. Individual의 구성은 in + dividua이며, divide(나누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dividua에 부정접사 in이 붙은 단어이다. Individual의 어원은 직역하면 '불가분(不可分)', 즉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일본인으로서 '개인'이라는 개념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일신교인 그리스도교 신앙의 영향이다. 인간에게는 몇 가지 얼굴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언제나 단 하나의 '진정한 나'로 유일한 신을 섬겨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나눌 수 없다'는 의미뿐이었던 'individual'이라는 말에서 '개인'이라는 의미가 생겨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논리학이다. 예를 들어 의자와 책상은 각각 의자와 책상으로 나뉜다. 그러나 책상은 더 이상 나뉘지 않고, 의자는 의자로 더는 나뉘지 않는다. 요컨대 이 나뉘지 않는 최소 단위가 바로 '개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이라는 존재가 여럿이 묶여 조직을 이루고 사회를 이룬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대상은 유일한 신이 아니라 다종다양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상대와의 개성 사이에서 조화를 찾아 내려 하고, 그때그때마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인격을 만들어내며, 실제로 그 인격으로 살아간다.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성립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저절로 기쁨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여러 인격으로 본심을 이야기하고, 상대의 언동에 감동받아서 깊은 생각에 잠기거나 인생을 바꿀 결단을 내리기도 한다. 요컨대 그 여러 개의 인격이 모두 '진정한 나'다. 그러나 여러 개의 인격을 일본사회에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일본에서는 몇 가지 인격이 있으면 다중인격, 신용할 수 없는 인간 등 비판을 받는다.

히라노 작가는 불가분하다고 여겨졌던 '개인'을 나눠서 그 아래로 더 작은 단위를 생각해보았다. individual에서 in을 뺀 dividua, 즉 '분인(分人)'이라는 조어를 도입했다. '나눌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 인간 안에는 여러 개의 분인이 존재한다. 부모와의 분인, 연인과의 분인, 친구와의 분인, 직장에서의 분인 등 인간은 이러한 분인들의 집합체이다. 개인을 정수 '1'이라고 하면, 분인은 분수다. 사람마다 대인 관계 숫자는 다르므로 분모는 제각각이다. 그리고 상대와의 관계에 따라 분자도 바뀐다. 관계가 깊은 상대와의 분인은 크고, 관계가 얇은 상대와의 분인은 작다. 일단 이 모든 분인을 더하면 '1'이 된다. 분인은 특정한 누군가와의 반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형성된다.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하나는 취직이다. 인간은 대개 20대에 취직을 해서 60대에 퇴직을 한다. 즉 60년 동안 하나의 일을 해 오는 것이다. 일은 우리 정체성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을 만날 때 확인하는 것은 역시 '무엇을 하는가'이다. 그런데 일이 없으면 이상하게 생각한다. 히라노 작가가 졸업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나'는 모른 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원래 에도시대에는 태어날 때의 신분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었다. 무사의 아이는 무사이고, 농민의 자식은 농민이었다. 자신이 무엇을 할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근대에는 태어날 때 무엇을 할지 정해져 있지 않았다. 여기에 패러독스가 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찾은 후에 일을 찾아야 하는데, 우선 일부러 찾고 진정한 나를 기다린다. 또한 요새는 취직하기도 힘들뿐더러 최근에는 여러 직업을 갖게 되었다. 대인관계 또한 마찬가지로이다. 다른 이유는 자살 문제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 특히 젊은 사람들의 자살이 문제이다. 자살의 문제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집에서는 평범한 생활을 해도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 많다. 이것을 분인으로 생각하면, 왕따를 당했던 학교에서의 분인은 부분적인 자신이지, 자신의 전체가 아니다. 그러므로 진짜 싫어했던 것은 학교 안에서의 자신이고, 학교 이외의 분인은 아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사랑 받지 못하는 인간이라고 본질을 규정해버리면 안 된다.

다음은 사랑에 대한 문제이다. 연애(戀愛)라는 말도 메이지 시대에 유럽에서 유입된 'love'라는 새로운 개념의 번역어이다. '연'과 '애'는 다른 느낌이다. '연'이란 일시적으로 불타올라서 어떻게든 상대와 맺어지고 싶어 하는 격렬하고도 강한 강점이다. '애'는 관계의 지속성이 중시되는 개념이다. 격렬한 감정은 없지만 일상적으로 지속되는 견고한 결속력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연애는 연으로 시작해서 애로 깊어진다. 분인으로 생각해보면 '애'는 '그 사람과 있을 때의 내 분인이 좋은' 상태를 뜻한다. 다시 말해 타자를 경유한 자기 긍정 상태이다. 연애를 할 때에는 그 상대와 함께할 때의 나(분인)가 좋으나 싫으나 하는 면이 크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두 명의 여성과 데이트를 할 때, A와 데이트할 때는 대화가 즐겁고, 농담도 잘 통한다. B와 데이트 할 때는 그녀가 나쁘지는 않지만 그녀와 함께 있던 자신이 시시한 인간으로 느껴진다. 그렇다면 A와 있고 싶어진다. 사랑이란 상대의 존재가 당신 자신을 사랑하게 해주는 것이다. 동시에 당신의 존재로 말미암아 상대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타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만 존재한다.

한편,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는 몇 년간 외롭고 슬프다. 이것은 그 사람과 있었던 때의 분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분인은 타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발생하지도 않고 유지할 수도 없다. 상대와의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갱신되면서 신선도를 유지한다. 즉 분인은 '살아 있다'는 뜻인데, 상대가 죽어서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면 이제 두 번 다시 갱신할 수 없다.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슬픈 일이다. 게다가 이제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생긴 분인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슬프다. 그리고 그 분인은 추억 속에서만 살아간다. 현재 살아 있는 사람의 뜻밖의 언동으로 갱신될 기회가 없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슬픔이다.

마지막으로 히라노 작가는 청중들에게 자신이 언젠가 죽을 때를 생각해 보라고 권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여유가 있을 때, 자신은 어떤 분인이 있었는지,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분인은 어땠는지 등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래서 좋아하는 분인의 비율을 늘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인의 비율은 줄이라고 조언을 하면서 강연을 마무리 지었다.

<토론>

질문 : 미시마 유키오에 대해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답 : 미시마를 비판적으로 극복하는 것을 자신의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미시마는 전후 민주주의 사회에 너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허무주의의 시대에 살았는데, 이 세계의 의미는 무엇인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때 미시마는 단편화하고 의미화한 개인을 천황제 같은 매우 큰 세계관을 부활시킴으로써 공동성을 회복시켰습니다. 천황을 중심으로 문화적 질서를 회복시킴으로써 인간이라는 것은 큰 세계의 의미로 이어지고 서로 연결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시마의 생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뭔가 큰 질서 속에 자신을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인 관계에 리얼리티를 갖다 놓고 자신을 평가하고 삶의 실감이라는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인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이 아니고 보다 세분화된 자신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 삶의 의미를 회복한다는 것이 저의 최근의 시도입니다. 미시마는 최근 화제가 된 헌법 9조 개정 등 정부의 주장과 겹치는 부분이 있고, 어떤 의미로 다시 주목 받고 있는 작가이며, 사후 50년이 되는 2020년 그 타이밍에 미시마의 사상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었는지 다시 고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인간이 분인화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속에서 인간을 생각했을 때 국민 등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인화된 개인과 큰 공동체로서의 인간을 어떻게 조화시키려고 생각하십니까?

답 : 개인은 책임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분인화한다는 것은 무엇인가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도중에 명확하지 않지만, 설명한다면 먼저 정체성의 인식에 미디어(?)가 있습니다. 국가의 성질과의 관련성을 생각할 때는 즉 큰 세계와 맞서는 의미에서는 지금도 개인이라는 개념이 유효하게 기능하는 국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상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미디어를 이용하는 경우, 한 개인이라는 단위로 하는 것보다도 분화된 주체라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자신의 실감과 부합한다고 느낍니다. 혹은 경제 활동에서 개인을 단위로 하고 사회를 만들어 갔지만 오히려 사회가 인간을 규정하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에 종사하는 것으로 사회가 원활히 기능하길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점은 분인 쪽이 잘 기능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자유란 어떤 분인의 구성으로 어떠한 나로 있을 건가를 개인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주의 국가에서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인격이 100%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라도 인간이라는 것은 어느새 분인화되어 버립니다. 당과 다른 생각이 개인의 안에 생긴다거나. 그렇게 다른 사고방식이 전체주의의 사회 속에서 싹트고 있어 통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비밀경찰 등을 만들고 당과 다른 사고방식이 일어난다고 밀고 등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통치하는 데에는 개인이 더 통치하기 쉽습니다. 국민이 분화하면 어려워집니다. 개인이라는 개념이 일신교와 세트가 된 것처럼, 분화하지 않는 개인이 통

치하기 쉽습니다. 개인에는 좋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토크빌의 책 등을 보면 토크빌은 개인주의는 개인을 고립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그것을 보충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개인이라는 것은 내적으로는 개인적(individual)이고 타자와의 관계에서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분인주의라는 것은 개인은 내적으로 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사이에는 의존적인(dependent) 연관성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안에 있는 주체가 연기를 하는 주체성이 없다는 상태는 아니고, 언제나 상대의 생각과 말이라는 것이 섞여서 순수하게 자기와 타인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타인과 자기가 뒤섞인 비율을 나름대로의 기분 좋은 상태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 인간의 자유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를 억압하는 정치적 주체가 있으면 그것에는 반대합니다.

개인이 책임의 주체가 되어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받을 때 성장환경에 큰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그것이 참작되지만 오늘날 사회에서는 개인적인 주체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쩌면 사회적 상황 등에 의해서 그 개인이 재판에 물렸는지도 모릅니다. 분인이라는 시점에서 보면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있어서 어떤 분인이 그것에 영향을 주었느냐는 것을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 개인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으로 어떤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답 : 분인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인격을 사용한다는 말을 신중하게 피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인 관계 속에서 어디까지나 그렇게 된다는 것을 중시하고 있고, 무수한 욕망이 인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구체화할 때 그 상황도 분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치의 아이히만은 얼마나 합리적으로 유대인을 죽일 것인가를 열정을 가지고 계획합니다. 한편에서는 보통 가정 속에 있는 사람으로 아이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 아이히만인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안에 모순된 것이 있어서 그 내면에 있는 것이 구체화 할 때 분화된 상황에 의해서 아이히만이 어떤 인물로 행동할지 규정합니다. 욕망이 다양하게 있고 그 욕망이 몇 가지 대인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전체를 봤을 때는 부조리한 인간 같지만 그런 모순된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인간이 대인 관계 속에서 그 욕망의 어느 것인가를 표출시키는 것, 그러한 것이 오히려 리얼리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 : 분인이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분인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 복수의 분인이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생각이 아니라 상당히 힘든 분인이 표출함으로써 자신의 목숨까지 끊어 버린 경우가 있고, 10년 전의 아키히하라 사건(2008년의 아키히하라)의 범인처럼 현실 아닌(인터넷 세계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충실한 생활을 보내지 않은 것) 분인을 표출함으로써 남을 말려들게 하는 그런 경우는 분인의 발로가 단순하고 극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현대 일본에서는 약간 강요 받고 있는 환경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 분인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면 자신을 사회적 상황 속에 유형화한다고 했을 때에 맞지 않은 자신이라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나는 현실에 충실한 사람(リア充)인지, 인기가 없는 사람(非モテ)인지를 사회에서 자신을 분류하려고 할 때에 보입니다. 아키하바라의 사건의 범인의 경우는 인터넷 상에서 범행에 이르기까지 꽤 사이 좋게 대화를 하던 여성이 있었지만 자신을 사회 속에서 인기가 없는 사람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극단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분인이라는 것은 타자와의 사이에서 반응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인이라는 것은 사회 시스템론적으로 현상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개인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21세기 사회에서 소설을 그리는 것은 무리라고 느꼈습니다. 근대 이후 소설 속에서 개인이 어디까지나 중심이었지만, 그 한계라는 것을 나름대로 느낀 작품이 있었습니다. 소설을 그릴 때에 개인보다 세분화하여 상황을 분석하면 여러 가지 일이 깔끔하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문제가 되자. 아까 말했던 인생론, 자신이 좋아하는 분인의 비율을 크게 한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